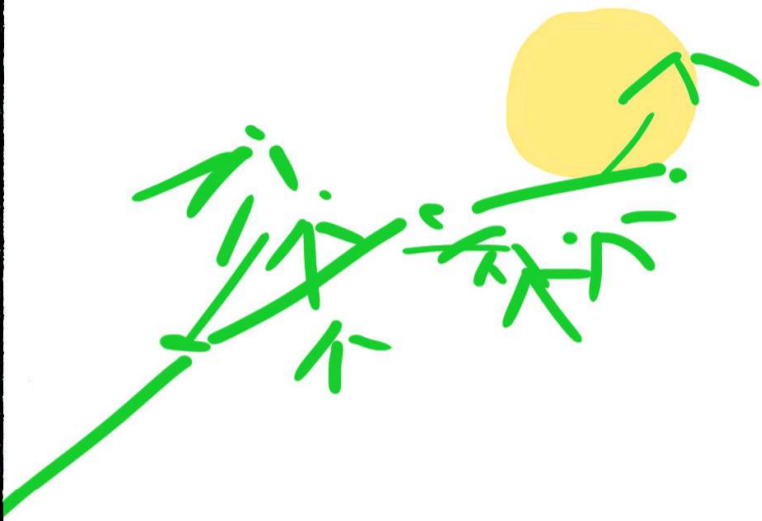


16. 큰 꿈을 가져라.(40세)



소치
매화초옥도



퇴계는 어릴 때부터 출세보다는 학문에 뜻을 두었다.

학문을 통해 성인군자가 되는 길을 찾을거야.



그래서 늘 학문을 연마했는데...

학문의 세계는 해도해도 끝이 없구나.



아니지. 이 좋은 것을 나만 알아서야 되겠는가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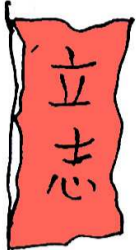
주변사람들도 학문에 힘쓰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.

학문을 하려면 먼저 바른 뜻을 세워야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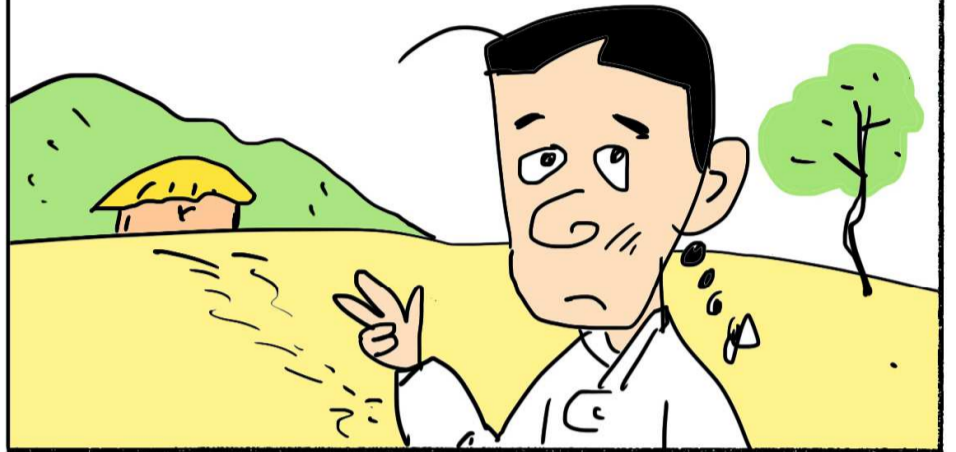
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.

“학문을 하려면 먼저
입지가 중요한데
목적이 바로 서지 않으면
마음이 흔들려 제대로
공부하기가 힘들기
때문이다.”



시골에서는
공부가 안되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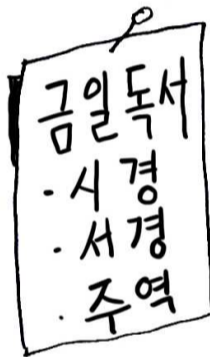
또한 공부를 어찌
때와 장소를 가려서
하러 하느냐?



공부를 서울에서 하든 시골에서 하든
무슨 상관이나? 오로지 네 자신이 세운
입지에 달린 것 아니냐.



모름지기 공부하려는 계획을 충분히
세우고 부지런히 해야 한다.



헛되이 세월을 그냥
허송해서는 안된다.

“빈둥빈둥”



퇴계는 자손들의 학업을 늘 염려하여
틈나는대로 공부할 것을 당부했다.

짜투리 시간도
아껴서 해야만
남들보다 앞 설 수
있다.

명심하겠
습니다.



네가 일이 많다는 핑계로 독서를 게을리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?

또 즐기고 있냐?

아!



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런함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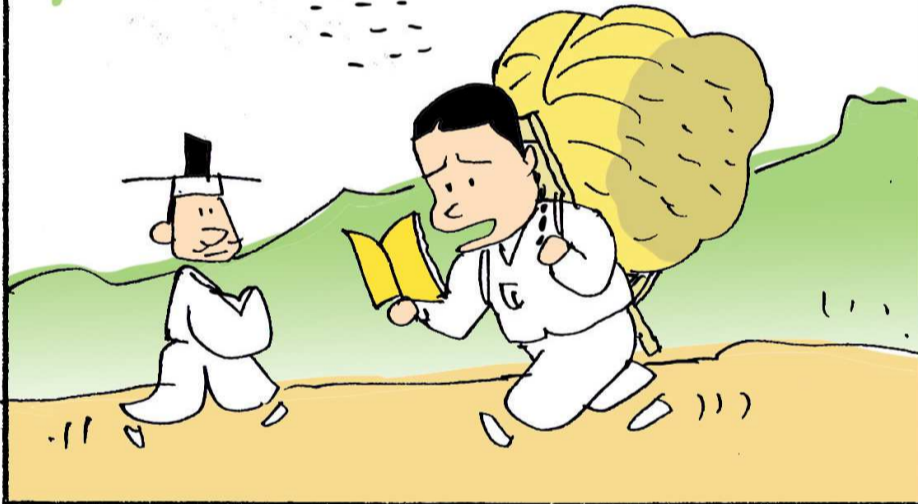
안타깝다. 그런 해이한 자세로 어찌 학문을 하겠는가?

죄송합니다.



늘 글을 쓰고 외우고 짓는 일에 공을 들여야한다.

“웅얼웅얼”



옆마을의 김생원과 우생원은 입지가 돈독하더구나.

올해 필히 과거 합격!

난 장원급제!



그들과 서로 돕고 본받아 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거라.”

- 아버지로부터

